

《靈樞·五味論》에 대한 研究

李文澈 · 申榮日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ABSTRACT

This report is closely related to 『Simple question · Five Qi Announcement』 that you shouldn't take a Hot Taste excessively in case of Qi pathology because a Hot Taste runs to Qi, you shouldn't take a Salty Taste excessively in case of Blood pathology because a Salty Taste runs to Blood, you shouldn't take a Bitter Taste excessively in case of Bone pathology because a Bitter Taste runs to Bone, you shouldn't take a Sweet Taste excessively in case of muscles pathology because a Sweet Taste runs to Muscles, you shouldn't take a Sour Taste excessively in case of Sinews pathology because a Sour Taste runs to Sinews.

Also the report mainly describes to relations between Five Tastes and BloodVessel-Organs of human body, to pathological change of a Five Tastes' one-sided diet or taking too much, and to various disease caused by that. And the section is called 'An Essay on Five Tastes', that Five Tastes of food and medicines could make human body either healthy or damaged so you should be careful.

This report is divided into two chapter, the first chapter presents to specific diseases according to runnings of Five Tastes, the second chapter shows the pathological process how the human body would change and what kind of disease attacks human body as result of taking Five Tastes. So this section is important remarkably as a viewpoint of food and medicines.

Key Word : Five Tastes(五味), Salty Taste, Bitter Taste, Sweet Taste, Sour Taste, Hot Taste.

접 수 : 2000년 4월 28일

채 택 : 2000년 5월 5일

교신저자 : 이문철,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과학교실
(0613-330-3525)

I. 緒 論

《黃帝內經》에五味에 대하여 여러篇에서論하고 있는데, 《靈樞 · 九鍼論》에는 “신맛은 肝, 매운맛은 肺, 쓴맛은 心, 단맛은 脾, 짠맛은 腎, 담味는 胃로 들어가니 이를五味라고 합니다.¹⁾”라고 하여五味를 섭취하였을 때 어느 臟腑로 들어가는지를論하였고, 《素問 · 藏氣法時論》에서는 “매운맛, 신맛, 단맛, 쓴맛, 짠맛의五味는 각각 작용이 있어 혹 疏散시키고 收斂시키며 혹 緩하게 하고 急하게 하며 혹 단단하게 하고 연하게 하니 四時와 五臟의 病을 治療할 때는五味의 작용을 따라야 합니다.²⁾”라 하였고, 《素問 · 至眞要大論》에서는 “매운맛과 단맛은 發散시키므로 陽이고 신맛과 쓴맛은 涌泄시키므로 陰이며, 짠맛은 涌泄시키므로 陰이고 담味는 滲泄시키므로 陽이 되니 이 여섯 가지는 혹 疏散시키고 收斂시키며 혹 緩하게 하고 急하게 하며 혹 마르게 하고 윤택하게 하며 혹 단단하게 하고 연하게 하니 작용하는 바를 따라 운용하면 氣機를 조화시키고 平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³⁾”라고 하여 모두五味가 인체에 미치는 作用에 대하여論하고 있다. 또한 《素問 · 藏氣法時論》에서는 “肝은 急한 것을 싫어하므로 빨리 甘味를 복용하여 완화시켜야 하고, 心은 緩慢한것을 싫어하므로 빨리 酸味를 복용하여 收斂시켜야 하며, 脾는 濕을 싫어하므로 빨리 苦味를 복용하여 燥濕시켜야 하고, 肺는 氣가 上逆하는 것을 싫어하므로 빨리 苦味를 복용하여 泄해야 하며, 腎은 건조함을 싫어하므로 빨리 辛味를 복용하여 腠理를 열고 津液을

敷布시켜 氣를 통하게 하여 潤燥시켜야 합니다. 肝은 疏散시키고자 하니 빨리 辛味를 복용하여 疏散시키야 하므로 辛味로 補하고 酸味로 瀉하며, 心은 柔軟하고자 하니 빨리 鹹味를 복용하여 부드럽게 해야하므로 鹹味로 補하고 甘味로 瀉하며, 脾는 緩하고자 하니 빨리 甘味를 복용하여 緩화시켜야 하므로 苦味로 瀉하고 甘味로 補하며, 肺는 收斂하고자 하니 빨리 酸味를 복용하여 收斂시켜야 하므로 酸味로 補하고 辛味로 瀉하며, 腎은 堅固하고자 하니 빨리 苦味를 복용하여 堅固하게 해야하므로 苦味로 補하고 鹹味로 瀉합니다.⁴⁾”라고 하여 五臟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른五味의 배합방법을論하여 方劑學의 기본이론을 제시하였고, 《靈樞 · 五味》에는 “五穀 가운데 粟(稷米)은 달고 藎(麻)는 시며 콩(大豆)은 짜고 밀(麥)은 쓰고 기장(黃黍)은 맵다. 五果 가운데 대추는 달고 오얏(李)은 시며 밤은 짜고 살구는 쓰며 복숭아는 맵다. 五畜 가운데 소고기는 달고 개고기는 시며 돼지고기는 짜고 양고기는 쓰며 닭고기는 맵다. 五菜 가운데 아욱은 달고 부추는 시며 콩잎은 짜고 莢豆는 쓰며 파는 맵다.⁵⁾”라 하여 藥餌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藥物을 소개하고 있다.

本篇은 《素問 · 宣明五氣篇》에 있는 “辛味는 氣로 주행하므로 氣病에는 辛味를 과다하게 복용하지 말아야 하고, 鹹味는 血로 주행하므로 血病에는 鹹味를 과다하게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苦味는 骨로 주행하므로 骨病에는 苦味를 과다하게 복용하지 말아야 하고, 甘味는 肉으로 주행하므로 肉病에는 甘味를 과다하게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酸味는 筋으로 주행하므로 筋病에는 酸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5, p.332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1985, p.89
3) 上揭書, p.304

4) 上揭書, pp.88-89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1985, 서울, p.246

味를 과다하게 복용하지 말아야 하니 이것이 五禁이다.⁶⁾”라고 한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주로 五味와 人體 經絡臟腑와의 관계 및 五味를 편식하거나 지나치게 섭취하여 발생하는 병리변화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疾病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飲食이나 藥物의 五味는 人體를 保養할 수도 있고 損傷시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하여 篇名을 五味論이라 하였다.

本篇의 내용은 《甲乙經》卷六 第九 「五味所宜五臟生病大論」에 일부의 내용이 산재되어 있고, 『千金要方』卷二十六 序論 第一과 《類經》卷十一 氣味類 第三 「五味之走 各有所病」과 《普劑》卷二百五十七 食治門에 全篇이 실려있다.

本篇의 내용은 2章으로 나누어지는데, 第一章에서는 五味의 所走에 따른 所病을 제시하고 있고, 第二章에서는 酸 苦 甘 辛 鹹 각각에 대하여 五味를 복용하였을 때 人體의 氣가 어떻게 변화하며, 이로 인해 어떠한 疾病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病理機轉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飲食·服藥 面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文章이 짧고, 古文으로 되어 있어 理解하기가 어렵고 版本마다 글자가 다르며, 全面的인 各 註釋家の 比較 研究가 없을 뿐만 아니라 註釋도 한결같지 않아 본래의 뜻을 理解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版本의 誤謬를 바로잡고 正確한 註釋을 가려내고, 여기에 懸吐와 國譯을 加함으로써 原文을 보다 精確하게 理解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研究에 착수하였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1. 研究 方法

本篇의 內容을 이해하기 쉽도록 原文을 內容別로 二章 五節로 나누고, 正文과 註釋의 原文에 懸吐를 하였으며, 校勘·字句解·較註·考察·直譯·意譯·結語의 順으로 研究하였다.

가. 正文의 底本은 聚珍倣宋版印本 《黃帝內經靈樞》로 하였다.

나. 《類經》, 《靈樞經校釋》 및 《黃帝內經章句索引》을 參考하여 그 內容을 二章으로 나누었다.

다.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基本으로 하고 가능한 現代화하였다.

라. 校勘은 「表一」의 文獻을 涉獵하여 比較調査하였다.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比較 參照하여 原文의 뜻에 가장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音과 訓을 選擇하였다.

바. 較註는 「表二」의 十三種 研究資料의 註釋들을 같은 內容 別로 모아 ‘○’로 구분하였고, 그 가운데 가장 適合하다고 認定되거나 또는 異見의 對象이 되는 註를 國譯하고 ‘●’로 표시하였으며, 註釋의 原文들은 脚註處理하여 參考하도록 하였다.

사. 直譯은 正文의 文法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아. 意譯은 校勘의 考察에서 校正한 內容과 較註에서 確定한 註釋의 內容을 따라 含蓄된 意味까지도 敷衍하여 解釋하였다.

자. 本 研究에 사용한 各種 符號는 校勘에 ‘00’, 字句解에 ‘(00)’, 較註에 ‘[00]’, 引用文獻에 ‘《00》’, 文獻의 章節에 ‘f00’ 등이며, 脚註는 ‘1), 2), 3), 4)’의 一連番號로 表示하였다.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1985, 서울, p.92

2. 研究 資料

<表.一> 校勘 書名 및 略稱

番 號	書 名	略 稱
1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과 明繡谷書林周日校重刊本	周本
2	靈樞經校釋에서 인용 守山閣刊本	守本
3	黃帝內經太素	太素
4	黃帝鍼灸甲乙經	甲乙
5	張馬合注本 黃帝內經素問靈樞	合本
6	千金要方	千金
7	五行大義	大義
8	普濟方	普濟
9	難經本義	難經
10	衛生寶鑑	衛生

<表.二> 較註 書目 및 略稱

番號	註 釋 家	時 代	書 目	略 稱
1	楊上善	隋	黃帝內經太素	楊
2	馬蒔	明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馬
3	張介賓	明	類經	景岳
5	張志聰	清	靈樞集注	張
6	黃元御	1756年	靈樞懸解	黃
7	丹波元簡	1808年	靈樞識	丹波
8	章楠	1825年	靈素節注類編	章
9	楊維傑	1976年	黃帝內經靈樞譯解	譯解
10	郭靄春	1981年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語譯
11	河北醫學院	1982年	靈樞經校釋	校釋
12	李今庸	1988年	新編黃帝內經綱目	庸

Ⅲ. 本 論

第一章. 五味の 所走 所病

【原 文】

黃帝問於少俞曰 五味入於口也¹⁾에 各有所

走하며 各有所病이라 酸走筋¹⁾하니 多食之²⁾면 令人癰²⁾하고 鹹走血하니 多食之³⁾면 令人渴하고 辛走氣하니 多食之⁴⁾면 令人洞³⁾心⁵⁾하고 苦走骨하니 多食之⁶⁾면 令人變嘔⁷⁾하고 甘走肉⁸⁾하니 多食之⁹⁾면 令人悵心¹⁰⁾⁵⁾^[1]이라 余知其然也어니와 不知其何由하

니 願聞其故하노라

【校 勘】

- 1) 五味入於口也: 《太素》卷二 調食에는 '五味之入於口也'로 되어 있고, 《大義》卷三 論配氣味の 《養生經》을 인용한 문장에는 '五味之入口也'로 되어 있다.
- 2) 酸走筋多食之: 『千金』卷二十六 序論一과 《普劑》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모두 '酸走筋多食酸'으로 되어 있다.
- 3) 鹹走血多食之: 《千金》卷二十六 序論一과 《普劑》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모두 '鹹走血多食鹹'으로 되어 있다.
- 4) 辛走氣多食之: 《千金》卷二十六 序論一과 《普劑》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모두 '辛走氣多食辛'으로 되어 있다.
- 5) 洞心: 《千金》卷二十六 序論一과 《普劑》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모두 '愠心'으로 되어 있다.
- 6) 苦走骨多食之: 《千金》卷二十六 序論一과 《普劑》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모두 '苦走骨多食苦'로 되어 있다.
- 7) 變嘔: 《大義》卷三 論配氣味에는 '攣'으로 되어 있다.
- 8) 甘走肉: 《大義》卷三 論配氣味에는 '甘走皮'로 되어 있다.
- 9) 甘走肉多食之: 《千金》卷二十六 序論一과 《普劑》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모두 '甘走肉多食甘'으로 되어 있다.
- 10) 悅心: 《太素》卷二 調食에는 '心悅'으

로 되어 있고, 《千金》卷二十六 序論一과 『普劑』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모두 '惡心'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筋: 骨絡肉力, 힘줄 근
- (2) 癰: 小便不通也 오줌누지 못할 림
- (3) 洞: 貫也, 뚫을 통
- (4) 嘔: 吐也, 게을 구
- (5) 悅心: 愠心. 가슴에 열이 차서 답답한 모양, 悅 잇을 문.

【較 註】

五味入於口也 各有所走 各有所病 酸走筋多食之 令人癰 鹹走血 多食之 令人渴 辛走氣 多食之 令人洞心 苦走骨 多食之 令人變嘔 甘走肉 多食之 令人悅心

楊·馬·景岳·黃·章·『語譯』에서는 "癰은 淋病이요 洞心은 心氣가 빠져나가는 질병이다. 五味는 각기 五臟이 主宰하는 五臟으로 들어가 筋·血·氣·骨·肉을 滋養하므로 不足하면 筋·血·氣·骨·肉이 적어지고 有餘하면 또한 病을 초래하니 그 이치가 중요한 까닭에 물은 것이다."라고 하였고,

- 7) 楊: 癰은 淋也라 洞心은 心氣流洩疾이라 五味는 各走五臟所主하여 益其筋血氣骨肉等하니 不足하면 皆有所少하고 有餘면 竝招於病하니 其理是要 故로 請聞之라 ○馬: 此는 帝即五味各有所走 而多食各有所病者를 問之也라 癰은 小便不通也요 洞心者는 心內空也요 悅心者는 心內悶也라 ○黃: 洞心은 心中空洞也요 悅心은 心中鬱悅也라 ●章: 癰者는 小便閉也요 洞心者는 中氣耗散하여 心中空洞無主也요 悅心者는 心內滿悶也라 ○語譯: 各有所走는 謂五味各喜走同性之臟이라 癰은 王冰曰 小便不通이요 變嘔는 謂揚嘔라하고 小爾雅廣詁에 變은 揚也라하니라

張은 「五運行大論」에 ‘東方에서 風이 발생하니 風에서 木이, 木에서 酸이, 酸에서 肝이, 肝에서 筋이 발생하며, 南方에서 熱이 발생하니 熱에서 火가, 火에서 苦가, 苦에서 心이, 心에서 血이 발생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五臟은 五味에 근본을 두고 생성되는 것이고 밖으로 筋骨血肉에 부합하므로 五味를 먹으면 각각 들어가는 곳이 있다. 무릇 心은 血을 주하며 腎은 骨을 주한다 하고 苦味는 火에 속하며 鹹味는 水에 속한다 하였으니, 苦味는 骨로 鹹味는 血로 들어간다는 것은 陰陽水火가 交濟하기 때문이다. 肺는 氣를 주하므로 辛味는 氣로 들어간다.⁸⁾”라고 하였다.

【考 察】

〔校勘에 對한 考察〕

‘洞心’에 대해 《千金》, 《普劑》에는 모두 ‘愠心’으로 되어 있으며, 《甲乙》卷六第九 校語에 “‘洞一作愠’이라 하였으니 ‘愠’은 아마도 ‘愠’의 誤寫인 것 같다.”라 하였고, 《校釋》에 “아래 辛走氣 節의 薑韭之氣가 薰之하여 나타나는 病證으로 보아야 하니 ‘愠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나 辛味를 복용하면 上焦에 있는 營衛의 氣를 發散시켜 心中이 空虛하게 되므로 ‘洞心’을 ‘愠心’으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變嘔’에 대해 《大義》에는 ‘攣’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 苦走骨 章의 내용에서 苦味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胃中の 陽氣가 運化하지 못하고 三焦之氣가 閉塞되어 嘔證이 나타난다 하였으니 ‘攣’으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甘走肉’에 대해 《大義》에는 ‘甘走皮’로 되어 있는데, 醫學理論上 甘味와 皮는 별로 관계가 없으므로 ‘甘走皮’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惋心’에 대해 《太素》에는 ‘心惋’으로 되어 있고, 《千金》과 《普劑》에는 ‘惡心’으로 되어 있는데, 《素問·生氣通天論》王注에는 ‘心悶’으로 되어 있고 ‘惋’과 ‘悶’은 서로 통하며, ‘惡心’의 뜻도 이와 비슷하므로 원문에 있는 ‘惋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較註에 對한 考察〕

‘苦走骨鹹走血’에 대해 오직 張만이 陰陽 水火가 交濟하기 때문에 바뀌어 있다고 보았다.

【直 譯】

黃帝께서 小俞에게 물어 말씀하셨다. “五味가 입으로 들어가서 각각 走行하는 곳이 있고 病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酸味는 筋으로 走行하니 많이 섭취하면 癰證이 발생하고, 鹹味는 血로 走行하니 많이 섭취하면 갈증이 나게 되고, 辛味는 氣로 走行하니 많이 섭취하면 洞心證이 발생하고, 苦味는 骨로 走行하니 많이 섭취하면 氣를 변화시켜 嘔吐를 일으키고, 甘味는 肉으로 走行하니 많이 섭취하면 惋心證이 발생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무슨 이유인지를 알지 못하니 그 까닭을 듣고자 합니다.”

8) 張: 按五運行大論컨대 云東方生風하니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하며 南方生熱하니 熱生火 火生苦 苦生心 心生血이라하니 是는 五臟이 本於五味之所生 而生外合之筋骨血肉也라 是以로 五味入口에 而各有所走라 夫心主血 腎主骨이라하고 苦는 乃火之味요 鹹은 乃水之味라하니 苦走骨而鹹走血者는 陰陽水火之交濟也라 肺主氣 故로 辛走氣라

第二章. 五味의 作用

第一節. 酸味の 作用

【原文】

少俞答曰 酸入於胃¹⁾하면 其氣澀⁽¹⁾以收⁽²⁾하여 上之兩焦하여 弗能出入也⁽³⁾라 不出即留⁽²⁾於胃中⁽⁴⁾하고 胃中和溫則下注膀胱⁽⁵⁾하니 膀胱之胞⁽³⁾薄以懦⁽⁶⁾⁽⁴⁾라 得酸則縮絀⁽⁷⁾⁽⁵⁾하여 約⁽⁶⁾而不通하여 水道不行⁽⁸⁾ 故로 癰⁽⁹⁾이요 陰者는 積筋之所終也⁽¹⁰⁾라 故로 酸入而走筋矣⁽¹¹⁾⁽¹⁾니이다

【校勘】

- 1) 酸入於胃: 《太素》卷二 調食과 『甲乙』卷六 第九에는 '酸入胃'로 되어 있다.
- 2) 其氣澀以收: 《甲乙》卷六 第九에는 '其氣澀'으로 되어 있다.
- 3) 上之兩焦弗能出入也: 《甲乙》卷六 第九에는 '弗能出入也'로 되어 있고,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上走兩焦兩焦之氣澀弗能出入也'로 되어 있으며, 『普劑』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上走兩焦兩焦氣澀之不能出入'으로 되어 있다.
- 4) 留於胃中: 《千金》卷二十六 序論一과 『普劑』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모두 '流於胃中'으로 되어 있으며, 《衛生》卷二에는 '留胃中'으로 되어 있다.
- 5) 下注膀胱: 《甲乙》卷六 第九과 《衛生》卷二에는 '下注於膀胱之胞'로 되어 있다.
- 6) 膀胱之胞薄以懦: 《周本》에는 '膀胱胞薄以懦'로 되어 있고, 《千金》卷二十六 序論一과 『普劑』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모두 '膀胱走胞胞薄以懦'로 되어 있고, 《太素》卷二 調食에는 '懦'가

'濡'로 되어 있으며, 《甲乙》卷六 第九에는 '懦'가 '罔'으로 되어 있고, 校釋에 "《守本》注에 '懦는 원관이懦로 잘못 되어 있다.'"고 하였다.

- 7) 縮絀: 《太素》卷二 調食과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縮卷'으로 되어 있다.
- 8) 水道不行: 《太素》卷二 調食에는 '水道不通'으로 되어 있고, 《千金》卷二十六 序論一과 『普劑』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모두 '水道不利'로 되어 있다.
- 9) 故癰: 《衛生》卷二에는 '故癰而澀'으로 되어 있다.
- 10) 積筋之所終也: 《甲乙》卷六 第九와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積筋之所終聚也'로 되어 있고, 『普劑』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모두 '精筋之所中聚也'로 되어 있다.
- 11) 酸入而走筋矣: 《甲乙》卷六 第九와 『普劑』卷二百五十七 食治門 總論에는 '酸入胃而走筋矣'로 되어 있고,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酸入胃走於筋也'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澀: 不滑也 澀也, 갈갈할 삼
- (2) 留: 止也, 머무를 유
- (3) 胞: 脬也 오줌통 포
- (4) 懦: 驚弱, 약할 유. 柔也, 부드러운 나
- (5) 縮絀: 오그라들어 붙는 것. 縮 오그라들 축, 絀 붙좃을 권
- (6) 約: 纏束, 묶을 약

【較註】

酸入於胃 其氣澀以收 上之兩焦 弗能出入也 不出即留於胃中 胃中和溫 則下注膀胱 膀胱之胞薄以懦 得酸則縮絀 約而不通 水道

不行 故癰 陰者 積筋之所終也 故酸入而走筋矣

楊은 “瀯은 매끄럽지 않은 것이다. 酸味는 성품이 갈갈하고 收斂시키므로 위로 上中二焦로 가니 營氣와 함께 주행하지 못하고 다시 胃로 돌아올 수가 없다. 능히 胃에서 나갈 수 없어 胃氣가 뜨거워지면 膀胱으로 흘러내려가니 膀胱은 표피가 얇고 연하므로 酸味が 들어가면 조그라들어 水氣가 통하지 않아 癰病이 생긴다.”⁹⁾라고 하였고,

馬·張·丹波·《譯解》에서는 “이는 酸味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癰病이 생기게 되는 이유에 대한 답이다. 대개 酸味는 갈갈하고 收斂시키므로 胃의 中脘으로 들어가면 上·中焦로 올라간다. 그 氣味の 속성이 빠르게 출입할 수가 없어 胃中에 머무르니 오래되면 胃中이 溫和해져 膀胱으로 흘러 내려간다. 膀胱은 胞의 집으로 胞가 그 안에 있으며 形體가 얇고 氣가 느리므로 酸味の 작용을 받으면 오그라들고 말려서 오그라들고 통하지 않아 水道가 통하지 않게 되어 癰病이 된다. 筋이 외부로부터 모여 陰器가 된다는 것은 바로 신체의 筋肉이 여기에 모이기 때문이니 이미 肝이 筋과 酸味를 主宰한다 하였으므로 酸味が 들어오면 肝으로 走行하니 陰器도 또한 막혀 小便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니 어찌 안에 있는 膀胱만이 그러할 수 있으리요.¹⁰⁾”라고

9) 楊: 瀯은 不滑也라 酸味는 性爲瀯收 故로 上行兩焦하니 不能與營俱出而行하며 復不能自反還入於胃也라 既不能出胃하야 因胃氣熱이면 下滲膀胱之中하니 膀胱은 皮薄而又栗 故로 得酸則縮約不通하여 所以成病爲癰이라 癰은 淋也요 胞는 苞盛尿也라 人陰器는 一身諸筋終聚之處 故로 酸入이면 走於此陰器라

10) ●馬: 此는 答言酸之多食이면 令人癰也라 蓋酸之氣味는 瀯滯而收斂하니 既入於胃之中脘이면 則上兩焦니 卽上中二焦也라 其氣味가

하였고,

黃은 “酸味が 胃로 들어가면 그 氣는 收澁하는 까닭에 위로 上中二焦에 들어가므로 往來할 수 없으니 바로 胃中에 머무르게 된다. 胃中の 陽氣가 酸味の 收澁한 기운을 얻어 和溫하게 되어 鬱滿이 생기면 그것이 勝하는 곳으로 傳하여져 아래로 膀胱에 흘러가니 膀胱은 體가 여리고 얇으며

弗遽能出入하여 乃留於胃中하니 久則胃中和溫하고 而下注膀胱이라 膀胱은 爲胞之室이니 胞在其中하며 其體薄하고 其氣懦하여 得此酸味면 則縮而且縊하여 所以約而不通하고 水道不行而爲癰也라 至於外而爲陰器者는 乃一身之筋이 於此而終이라 彼肝이 既主筋하고 又主於酸 故로 酸入則走筋하니 其陰器도 亦有所約하여 而小便不利矣하니 豈特膀胱之在內者로 爲然哉리요 ○張: 五味陰陽之用에 辛甘發散爲陽이요 酸苦涌泄爲陰이요 鹹味涌泄爲陰이요 淡味滲泄爲陽이라하고 六者는 或收或散하며 或緩或急하며 或燥或潤하며 或軟或堅이라하니 是發散涌泄之中에 又有收散緩急之性矣라 上焦는 開發하여 宣五穀味하고 中焦는 出氣如露하여 以行水穀之津하니 酸氣는 收瀯 故로 弗能出於上之兩焦하며 不出則留於胃하고 而溜於下焦하여 注於膀胱矣라 膀胱은 爲脬之室이니 脬居於中 故로 膀胱之體質이 脆薄以懦에 得酸則易於縮縊하니 縮則約而不通하고 水道不行 故로 爲癰閉라 陰者는 前陰이요 積筋者는 宗筋也요 宗筋者는 筋之主也니 酸入於宗筋 故로 走筋也라 按經筋篇컨데 云足厥陰之筋은 上循陰股하여 結於陰器하여 絡諸筋하니 其病은 陰股痛하고 轉筋하고 陰器不用이라 傷於內면 則不起하고 傷於寒이면 則陰縮入하고 傷於熱이면 則綜挺不收하니 是는 足厥陰肝經이 主宗筋하여 而外合於通體之筋이라 ○丹波: 懦는 音이 濡니 說文에 驚弱也라 又音軟이라하여 又作慳하니 玉篇에 弱也라 縮縊을 馬氏 志聰은 連讀하니 爲是라 說文 新附字에 縊縊은 不相離也이라하고 又釋名에 縊縊은 束縛也라하니라 張註의 縮下爲句는 非라 ○譯解: 縮은 是收縮이요 縊은 是束縛牢固的意思니 說文에 縊은 縊縊不相離也이라하고 又釋名에 縊縊은 束縛이라

濡弱하여 쪼그라들기 쉬우니 한번 酸氣를 받으면 퍼지지 않고 수축하여 上下의 구멍이 모두 막혀 통하지 않아 水道가 不利하는 까닭에 小便이 나오지 않게 된다. 前陰은 筋이 뭉쳐서 모이는 곳이니 肝은 主筋하고 肝味는 酸이므로 酸味が 들어가면 筋으로 들어간다. 木은 疏泄을 주하므로 辛散하는 것을 좋아하고 酸收하는 것을 싫어하니 小便이 나오지 않는 것은 木氣가 酸味の 收斂하는 기운을 받아 疏泄機能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이다.¹¹⁾”라고 하였고,

景岳은 “이는 上中二焦가 澁結하여 퍼지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縊은 나뉘지 않는 것이요 約은 묶인 것이요 癰은 小便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酸味를 과다하게 먹으면 氣가 上中 兩焦로 올라가 出入할 수 없으니 만약 胃中에 머무르면 吞酸 등의 病이 되고, 만약 胃中이 溫和하여 머무르지 않게 되면 아래로 膀胱으로 흘러들어가니 膀胱은 酸味를 받으면 收縮하는 까닭에 癰病이 생기는 것이다. 陰者는 陰器요 積筋은 宗筋이 모이는 곳이니 肝이 主筋하고 그味는 酸이므로 안으로는 膀胱의 癰病을 만들며 밖으로는 肝經의 筋으로 들어간다. 또한 宣明五氣篇에 ‘酸味는 筋으로 들어가니 筋病에는 酸味를 많이 먹지 말아라’라고 하였다.¹²⁾”라고 하였고,

章은 “收斂하는 酸味는 밖에서 안으로 당기지 아니하고 아래로 膀胱으로 들어가니 膀胱은 胞가 얇아 酸味를 받으면 오무라들게 되므로 三焦의 氣化를 얻지 못하여 小便이 不通하게 되어 癰病이 된다. 膀胱은 前陰部位에 있으며 前陰은 宗筋이 모이는 곳이므로 모든 筋肉의 끝이 되니 이것이 바로 酸味が 筋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또한 筋과 같은 것들은 肝이 主하는 것이며 酸味는 먼저 肝으로 들어가므로 酸味는 筋으로 들어간다.¹³⁾”라고 하였다.

은 不分也요 約은 束也요 癰은 小水不利也라 味過於酸이면 則上之兩焦하고 弗能出入하니 若留於胃中 則爲吞酸等疾이요 若胃中溫和不留 則下注膀胱하니 膀胱이 得酸則縮 故로 爲癰也라 愚按컨데 陰陽別論에 有云女子胞者하며 氣厥論에 有云胞移熱於膀胱者하며 五音五味篇에 有云衝脈任脈皆起於胞中者라하니 凡此胞字는 皆音包로 乃以子宮爲言也 此節云膀胱之胞者는 其音拋으로 以溲脬爲言也니 皆胞音有二나 而字則根同이니 恐人難辨 故로 在本篇에 特加膀胱二字하여 以明此非子宮이니 正欲辨其疑似耳는 奈何오 後人이 不解其意하고 俱讀爲包하여 反因經語하여 遂認膀胱을 與胞爲二物 故로 在類纂에는 則曰膀胱者 胞之室이라하고 王安道는 則曰膀胱이 爲津液之府며 又有胞는 居膀胱之室之說이라하니 甚屬不經이라 夫脬는 卽膀胱이요 膀胱은 則脬也니 焉得復有一物耶리오 致資後學之疑하여 莫知所辨은 皆見之不眞耳니 知者는 當詳察之라 陰者는 陰器也요 積筋者는 宗筋之所聚也라 肝主筋하고 其味酸 故로 內爲膀胱之癰하며 而外走肝經之筋也라 又宣明五氣篇에 曰酸走筋하니 筋病엔 無多食酸이라하니라

11) 黃: 酸入於胃면 其氣收澁 故로 上走上中二焦하여 弗能出入하니 不出卽留於胃中이라 胃中陽氣가 得此酸收하여 生其和溫하고 鬱滿莫容하면 則傳其所勝하여 下注膀胱하니 膀胱之脆薄以濡弱하여 最易收斂할새 一得酸氣면 縮縊不伸하여 上下之竅皆閉하여 約結不通하여 水道不利 故로 小便癰이라 前陰者는 積筋之所終也니 肝主筋而味酸 故로 酸入而走筋矣라 木主疏泄하여 喜辛散而惡酸收하니 癰者는 木氣酸收하여 疏泄之令이 不行也일새라

12) 景岳: 此는 謂上中二焦가 澁結不舒也라 縊

13) 章: 此는 言酸收之味는 不能外引하고 而下走膀胱하니 膀胱胞薄하여 得酸收면 而縮縊故로 不能承三焦氣化而泄水하여 遂小便不通而成癰也라 膀胱은 在前陰하니 前陰은 爲宗筋所聚 故로 爲積筋所終之地니 此酸味所以走於筋也요 又如筋者는 肝所主니 酸先入肝 故로 走於筋矣라

【考 察】

[校勘에 對한 考察]

‘上之兩焦弗能出入也’에 대해 《甲乙》에는 ‘弗能出入也’로 되어 있고, 《千金》에는 ‘上走兩焦兩焦之氣澀弗能出入也’로 되어 있으며, 《普劑》에는 ‘上走兩焦兩焦氣澀之不能出入’으로 되어 있는데, 《甲乙》은 酸味가 들어가는 機轉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말하는 것이고, 『千金』과 『普劑』은 모두 機轉과 結果를 말하고 있으며 아울러 ‘上之兩焦’의 ‘之’字에 대해 ‘간다’라는 뜻의 ‘走’로 해석하였으니 모두 原文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留於胃中’에 대해 《千金》과 《普劑》에는 모두 ‘流於胃中’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上之兩焦’라고 한 것을 볼 때 ‘流於胃中’은 다시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留於胃中’이 옳다고 본다.

‘膀胱之胞薄以濡’에 대해 《千金》과 《普劑》에는 모두 ‘膀胱走胞胞薄以濡’로 되어 있는데, 《千金》과 《普劑》는 모두 ‘膀胱’과 ‘胞’를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으니 잘못된 것이다. 또한 《太素》에는 ‘濡’가 ‘濡’로 되어 있고 ‘濡’를 楊注에서 溼으로 보았으며, 《守本》注에 ‘원판이 濡로 잘못 되어 있다’고 하였고, 《甲乙》에는 ‘濡’가 ‘溼’으로 되어 있으니, ‘濡’와 ‘溼’은 모두 부드럽다는 뜻으로 통용되므로 ‘膀胱之胞薄以濡’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縮絙’에 대해 《太素》과 《千金》에는 모두 ‘縮卷’으로 되어 있는데, ‘卷’은 ‘絙’의 약자로 《詩經》 民勞 ‘以謹縫絙’의 釋文에 ‘絙一本作卷’으로 되어 있으며 ‘卷’에는 ‘曲’의 뜻이 있으니 모두 옳다고 본다.

[較註에 對한 考察]

‘留於胃中 胃中和溫 則下注膀胱’에 대해 楊, 馬, 黃은 ‘酸味が 胃中に 모여 土氣가 實하여 水氣를 相克하므로 下注膀胱하여 癰病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景岳은 ‘胃中に 머무르면 吞酸 등의 病이 되고 만약 胃中이 溫和하여 머무르지 않게 되면 아래로 膀胱으로 흘러들어가 癰病이 발생한다’고 보아 두개의 다른 기전으로 보았으며, 章은 ‘酸味는 밖에서 안으로 氣를 收斂시키지 아니하고 바로 아래로 膀胱으로 들어가 三焦의 氣化를 얻지 못하게 하여 小便이 不通하게 되어 癰病이 된다.’고 보았는데, 章의 의견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膀胱之胞薄而濡’에서 ‘胞’에 대해 楊 등은 胞를 膀胱 자체로 보고 있고, 景岳만이 胞(자궁)와 脬(오줌보)는 엄연히 다르니 여기에서 ‘胞’는 ‘脬’의 誤植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濡’에 대해 楊은 ‘溼’으로 보았고, 黃은 ‘濡弱’으로 보았으며, 馬와 張은 ‘늘어진다’는 뜻으로 보았으니 모두 의미의 차이는 없다.

【直 譯】

小俞가 대답하였다. “酸味が 胃로 들어가면 그 氣는 갈갈하고 收斂시키므로 위로 兩焦로 올라가 능히 출입하지 못하게 되니, 나오지 않으면 胃에 머무르게 되며 胃中이 溫和하면 膀胱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膀胱은 胞가 얇고 부드러워 酸味를 받아들이면 수축하고 막혀서 통하지 않아 물길이 통하지 않게 되므로 小便이 나가지 않습니다. 陰器는 모든 筋이 모여 끝나는 곳이니 고로 酸味를 먹으면 筋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第二節. 鹹味の 作用

【原文】

黃帝曰 鹹走血하니 多食之에 令人渴은 何也오 少俞曰 鹹入於胃¹⁾하면 其氣上走中焦²⁾하여 注於脈³⁾則血氣走之⁴⁾하되 血與鹹相得則凝⁵⁾⁽¹⁾하고 凝則胃中汁이 注之하고 注之則胃中竭⁶⁾하고 竭則⁷⁾咽路焦 故로 舌本乾⁸⁾而善渴⁽²⁾이라 血脈者는 中焦之道也니 故로 鹹入⁹⁾而走血矣⁽¹⁾나이다

【校勘】

- 1) 鹹入於胃: 《甲乙》卷六第九와 《千金》卷二十六序論一에는 ‘鹹入胃’로 되어 있다.
- 2) 其氣上走中焦: 《千金》卷二十六 序論一과 《普劑》卷二百五十七 食治門總論에는 ‘其氣走中焦’로 되어 있다.
- 3) 注於脈: 《甲乙》卷六 第九와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走於諸脈’으로 되어 있다.
- 4) 則血氣走之: 《甲乙》卷六 第九와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脈者 血之所走也’로 되어 있다.
- 5) 血與鹹相得則凝: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與鹹相得即血凝’으로 되어 있고, 《太素》卷二 調食과 《甲乙》卷六 第九에는 ‘血與鹹相得則涖’로 되어 있다.
- 6) 胃中汁注之 注之則胃中竭: 《太素》卷二 調食에는 ‘胃汁注之 注之則胃中竭’로 되어 있고,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胃中汁泣 汁泣則胃中乾渴’로 되어 있고, 《甲乙》卷六 第九에는 ‘胃中竭’로 되어 있다.
- 7) 竭則: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渴則’으로 되어 있다.

8) 故舌本乾: 《太素》卷二 調食과 《甲乙》卷六 第九와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모두 ‘焦故舌乾’으로 되어 있다.

9) 故鹹入: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故鹹入胃’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凝: 結也, 엉길 응
- (2) 渴: 欲飲也, 목마를 갈

【較註】

鹹入於胃 其氣上走中焦 注於脈 則血氣走之 血與鹹相得 則凝 凝則胃中汁注之 注之則胃中竭 竭則咽路焦 故舌本乾而善渴 血脈者 中焦之道也 故鹹入而走血矣

楊·景岳은 “血은 물처럼 생겼고 작용하며 鹹味도 또한 水에 屬하니 鹹味는 血과 서로 통하므로 血脈으로 흘러 들어간다. 만약 鹹味를 과도하게 복용하면 血이 凝結하여 胃中の 水液이 血로 흘러가 津液이 竭하게 되나 血脈은 반드시 中焦에서 化하므로 鹹味는 中焦로 들어갔다가 血로 흘러들어간다. 또한 宣明五氣篇에 ‘鹹은 血에 흘러 들어가니 血病에는 鹹味를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¹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고,

14) 楊: 腎主於骨하니 鹹味走骨이나 言走血者는 以血爲水也라 鹹味之氣는 走於中焦血脈之中하여 以鹹與血相得이면 卽澁而不中하여 胃汁注之하여 因卽胃中枯竭하여 咽焦舌乾하니 所以渴也라 咽爲下食하고 又通於涎 故로 爲路也라 涖는 音侯요 水厓니 義當凝也라 血脈은 從中焦而起하여 以通血氣 故로 味之鹹味는 走於血也라 ●景岳: 血爲水化하고 鹹亦屬水하니 鹹與血相得 故로 走注血脈이라 若味過於鹹이면 則血凝而結하고 水液注之면 則津竭而渴이나 然이나 血脈은 必化於中焦 故로 鹹入中焦而走血이라 又宣明五氣篇에 曰鹹走血

馬·張·章·丹波는 “대개 鹹味が 胃로 들어가면 그 氣는 위로 中焦로 들어가고 사람의 脈은 반드시 中焦로부터 시작하니 鹹味が 中焦로 들어가면 鹹味の 上涌하는 작용에 힘입어 반드시 脈으로 흘러 들어간다. 오직 血만이 鹹味와 서로 섞이면 凝結하고 凝結하면 血이 마르므로 胃中の 汁이 들어가 적셔주니 이러한 까닭에 胃中の 汁이 고갈되고 고갈되면 咽喉部位가 마르고 건조하므로 舌乾하고 善渴하게 된다. 血脈은 中焦의 道路가 되는 까닭에 鹹味が 들어가면 血로 흘러 들어간다.”¹⁵⁾라고 하였고,

黃은 “鹹味が 胃로 들어가면 그 氣는 위로 中焦로 들어가서 脈으로 흘러들어가고, 腎의 味는 鹹이요 心은 脈을 主하니 水가 火를 剋하여 그 所勝하는 곳으로 전하여진

하니 血病엔 無多食鹹이라하니라

- 15) ●馬: 此는 言多食鹹之면 令人渴也라 蓋鹹入於胃면 其氣上注於中焦하고 人之爲脈은 必由中焦而始니 今鹹走中焦면 則必注於脈하여 脈行而血氣隨之以走라 惟血與鹹味相得則凝하고 凝則血燥하여 而胃中之汁이 注以潤之하니 由是로 胃中之汁竭하고 竭則咽路枯焦 故로 舌根乾而善渴也라 血脈은 爲中焦之路 故로 鹹入而走於血耳라 ○張: 中焦竝胃하여 出上焦之後하니 此所受氣者는 泌糟粕하고 蒸津液하여 化其精微하여 上注於肺脈하여 乃化而爲血이라 鹹入於胃면 其氣上走中焦하여 注於脈者는 鹹性之上涌也니 注於脈하면 則走於血氣矣라 血者는 中焦之汁이니 奉心神而化赤이요 鹹은 乃寒水之味 故로 血與鹹相得則凝하고 凝則燥結하여 而胃中之汁이 以滋之면 胃中汁竭하여 則咽路焦枯 故로 舌本乾而善渴이라 血脈者는 中焦之道路니 鹹氣上注於中焦 故로 走血이라 ○章: 中焦受氣면 取汁하여 變化而赤이 是謂血이니 受氣入營하여 而充於經脈者也라 故로 鹹味入中焦면 而使血凝하고 凝則陽氣窒塞하여 津液不能輸布하니 而胃中水汁이 注之하여 因而致渴이라 由於鹹味凝血使然 故로 知鹹走血也라

다. 脈은 血의 창고이니 鹹味が 脈으로 흘러 들어가 血氣에 섞이면 凝結하고 血이 凝結하면 胃汁이 따라 들어가서 胃中の 汁이 고갈되고 고갈되면 咽路가 마르게되는 까닭에 舌本이 乾燥하고 善渴하게 된다. 血脈은 中焦의 道路이며 中焦가 氣를 받아 汁을 취하여 赤色으로 變化시키는 것이 血이니 血은 脈中을 行하고 이를 道路로 삼는다. 鹹味が 脈으로 들어가 血과 相逢하는 까닭에 鹹味が 들어가면 血로 흘러 들어간다.”¹⁶⁾라 하였다.

【考 察】

[校勘에 對한 考察]

‘其氣上走中焦’에 대해 《千金》과 《普劑》에는 ‘其氣走中焦’로 되어 있는데, 脈은 상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두루 퍼져 있으므로 ‘其氣走中焦’가 옳다.

‘注於脈’에 대해 《甲乙》과 《千金》에는 ‘走於諸脈’으로 되어 있는데, 上下節의 문맥과 내용을 참조하여 볼 때 ‘走於諸脈’이 옳다.

‘則血氣走之’에 대해 《甲乙》과 《千金》에는 ‘脈者 血之所走也’로 되어 있는데, 原文의 의미는 ‘氣가 脈으로 들어가면 血氣도 따라 들어간다.’는 것이고, 《甲乙》과 《千金》의 의미는 ‘脈은 血이 다니는 통로이다.’는 것으로 본 것이니 후자의 것이 조금

- 16) 黃: 鹹入於胃면 其氣上走中焦하여 而注於脈하고 以腎味鹹이요 心主脈이니 水性剋火하여 傳其所勝也라 脈者는 血之府也니 鹹注於脈이면 則血氣走之하니 得鹹而凝하고 血凝이면 則胃汁注之하니 注之면 則胃中汁竭하고 汁竭이면 則咽路焦涸 故로 舌本乾燥而善渴이라 血脈者는 中焦之隨道也요 中焦受氣取汁하여 變化而赤이 是謂血이니 行於脈中하여 以爲道路라 鹹入於脈하여 與血相逢 故로 鹹入而走血矣라

더 정확하다고 본다.

‘胃中汁注之 注之則胃中竭’에 대해 《千金》에는 ‘胃中汁泣 泣則胃中乾渴’로 되어 있고, 《甲乙》에는 ‘胃中竭’로 되어 있는데, 原文의 내용이나 《千金》의 내용이 모두 부연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甲乙》의 것이 옳다고 본다.

‘竭則’에 대해 《千金》에는 ‘渴則’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나타나는 症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 문구와 연결시켜 보아야 하므로 ‘竭則’이 옳다.

‘故鹹入’에 대해 《千金》에는 ‘故鹹入胃’로 되어 있는데, 上下節의 文脈과 내용을 참고하여 볼 때 ‘故鹹入胃’가 옳다.

[較註에 對한 考察]

‘鹹走血’의 의미에 대하여 楊·景岳은 ‘鹹味는 水에 속하고 인체의 血은 물에 해당하므로 鹹味가 血로 들어간다’고 보았으며, 馬·張·章·丹波 등은 ‘鹹味の 上涌하는 작용에 따라 脈으로 흘러들어가니 脈이 行하는대로 血氣가 따라 흘러간다’는 것으로 보았으며, 黃은 ‘鹹이 水에 속하므로 鹹味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水가 火를 剋하여 所勝하는 血로 들어간다.’로 보았으니 모두 一理는 있다고 본다.

【直 譯】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鹹味는 血로 走行하는데 많이 섭취하면 갈증을 일으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小俞가 대답하였다. “鹹味가 胃로 들어가면 그 氣는 中焦로 走行하여 脈으로 스며드는데 血氣는 脈을 走行하므로 血이 鹹味와 서로 만나면 엉기고, 엉기게 되면 胃中の 汁이 스며들고, 스며들면 胃中이 고갈되

고, 고갈된 즉 咽部가 마르게 되는 까닭에 舌本이 마르므로 자주 갈증이 느낍니다. 血脈은 中焦의 도로가 되는 까닭에 鹹味를 섭취하면 血로 走行하게 됩니다.”

第三節. 辛味の 作用

【原 文】

黃帝曰 辛走氣하니 多食之에 令人洞心¹⁾은 何也오 少俞曰 辛入於胃하면 其氣走於上焦하니 上焦者는 受氣²⁾而營諸陽者也라 薑²⁾韭³⁾之氣薰之³⁾면 營衛之氣⁴⁾不時受之하여 久留心下⁵⁾ 故로 洞心⁶⁾이라 辛與氣⁷⁾俱行하니 故로 辛入而與汗俱出⁸⁾하니이다

【校 勘】

- 1) 洞心: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慍心’으로 되어 있다.
- 2) 受氣: 《甲乙》卷六 第九에는 ‘受諸氣’로 되어 있고,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受使諸氣’로 되어 있다.
- 3) 薰之: 《甲乙》卷六 第九와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薰至營衛’로 되어 있다.
- 4) 營衛之氣: 《甲乙》卷六 第九와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營衛’로 되어 있다.
- 5) 久留心下: 《甲乙》卷六 第九에는 ‘久留於心下’로 되어 있고,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却留於心下’로 되어 있다.
- 6) 故洞心: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故慍慍痛也’로 되어 있다.
- 7) 辛與氣: 《太素》卷二 調食과 《甲乙》卷六 第九와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모두 ‘辛者與氣’로 되어 있다.

- 8) 故辛入而與汗俱出: 《甲乙》卷六 第九
에는 ‘故辛入胃而與汗俱出’로 되어
있고, 《難經》六十一難 注에는 ‘故辛
入心則與汗俱出’로 되어 있으며, 《千
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故辛入胃而
走氣 與氣俱出 故氣盛也’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洞心(통심): 心中若空也 가슴이 텅 비
게 느끼는 것
(2) 薑: 생강 강
(3) 韭: 부추 구
(4) 薰: 향내 훈, 훈자할 훈

【較註】

辛入於胃 其氣走於上焦 上焦者 受氣而營
諸陽者也 薑韭之氣薰之 營衛之氣 不時受之
久留心下 故洞心 辛與氣俱行 故辛入而與汗
俱出

楊·馬·張·景岳·黃·章·譯解에서는
“辛味が 胃로 들어가면 그 氣가 上焦로 走
行하는 것은 辛味の 性이 너무 散하기 때
문이다. 上焦는 穀氣를 받아 모든 陽經을
운영하는 것으로 生薑이나 부추의 辛熱한
기운이 上焦를 熏하면 營衛之氣가 아무 때
나 영향을 받아 發泄하게 되어 갈무리하지
못하게 된다. 心은 宗脈이 모이는 곳이니
氣가 泄하여 脈이 空虛해지면 心營이 虛해
지고 흩어지는 까닭에 辛味が 오랫동안 心
下에 머무르게 되면 洞心證이 발생하게 된
다. 辛味が 氣와 더불어 함께 行하면 氣가
辛散하는 작용을 얻어 發泄하는 까닭에 辛
味が 들어오면 땀이 나니 이것이 辛味가
氣로 들어가는 것이다.”¹⁷⁾라고 하였다.

17) 楊: 洞은 通洩也라 辛氣는 標悍하여 走於上
焦하고 上焦衛氣는 行於脈外하여 營腠理諸陽

이라 以薑韭之氣辛薰이면 營衛之氣가 非時受
之하니 則辛氣久留心下 故로 令心氣洞洩也라
辛走衛氣 卽與衛氣俱行 故로 辛入胃 卽與衛
氣汗俱出也라 ○馬: 此는 言多食辛者 令人洞
心也라 蓋辛入於胃면 其氣必走於上焦하니 上
焦者는 受氣而運諸陽者也라 故로 辛味既走於
上焦면 則不得不走於氣耳라 卽如薑韭者는 氣
味之辛者也라 營氣는 由中焦而生하여 必上隨
宗氣하여 以行於經隧之中하며 衛氣는 由下焦
而生하여 亦必出而行於分肉之間하니 所以不
時有此辛味之氣也라 惟此薑韭之氣가 久留心
下하면 則物在心下하여 而氣薰於上焦하니 上
焦氣湊면 心內似空 故로 多食辛者는 必洞心
也라 且此辛氣는 與心中之氣로 相得而俱行하
니 辛入 則汗必出이니 汗之出者는 以氣之出
也라 其心安得而不洞이리오 ○張: 上焦開發
하여 宣五穀味하고 熏膚하고 充身하고 澤毛
하여 若霧露之溉를 是謂氣라 辛走氣 故로 其
氣走於上焦하니 上焦者는 受中焦之氣하여 而
營諸表陽者也라 夫營衛之氣는 生於中焦하여
皆從上而出 故로 薑韭之氣上熏이면 則營衛之
氣不時受之하여 久留心下면 則爲洞心이라 辛
與上焦之氣가 俱行於表陽이면 則開發皮膚而
汗出이라 俞伯榮이 曰辛氣留於心下하고 而上
熏이면 則爲洞心이요 與氣俱行이면 則與汗共
并而出하니 蓋汗乃中焦水穀之液也라 ○景岳:
洞心은 透心若空也요 營諸陽은 營養陽分也라
辛味屬陽 故로 走上焦之氣分하니 過於辛이면
則開發而散 故로 爲洞心하고 爲汗出이라 又
宣明五氣篇에 曰辛走氣하니 氣病無多食辛이
라하니라 ●黃: 辛入於胃면 其氣走於上焦는
以辛性勝散也라 上焦者는 受穀氣而營於諸陽
之經者也라 薑韭辛熱之氣가 熏之면 營衛之氣
가 不時受之하여 發泄不藏하니 心者는 宗脈
之所聚也라 氣泄脈空하여 心營虛豁 故로 久
留心下 而成洞心이라 辛與氣俱行이면 氣得辛
散而發泄 故로 辛入而與汗俱出이니 是辛入而
走氣也라 ○章: 陽經之氣가 與衛陽之氣로 皆
由上焦出行於表者는 辛味는 升浮 故로 隨陽
氣走表하고 其性疏泄 故로 與汗俱出이니 汗
者는 心之液也라 辛味が 久留心下하여 而液
傷氣耗면 則心中如空洞無主也라 ○譯解: 洞
은 是空의 意思니 洞心은 就是指心氣內虛하여
心中感覺이 空洞無物의 樣子라 久留心下는 是
指進食薑韭之類의 辛味過多하여 留積在胃中的

【考 察】

[校勘에 對한 考察]

‘久留心下故洞心’에 대해 《甲乙》에는 ‘久留於心下故洞心’로 되어 있고, 《千金》에는 ‘却留於心下故慍慍痛也’로 되어 있는데, ‘洞’은 ‘空’의 의미로 아프다는 뜻은 없으므로 《千金》의 내용이 옳지 못하다고 본다.

‘故洞心’에 대해 《千金》에는 ‘故慍慍痛也’로 되어 있는데, 氣가 응체가 되어야만이 통증을 유발하고, 辛味를 많이 섭취하면 氣가 엉기지 않고 흩어지므로 ‘故慍慍痛也’로 보는 것은 醫學理論上 옳지 않다.

‘故辛入而與汗俱出’에 대해 《甲乙》에는 ‘故辛入胃而與汗俱出’로 되어 있고, 《難經》注에는 ‘故辛入心則與汗俱出’로 되어 있으며,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故辛入胃而走氣 與氣俱出 故氣盛也’로 되어 있는데, 前後 文脈을 살펴보거나 또한 辛味는 肺에 속하고 散氣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難經》注의 ‘辛入心’은 옳지 않다고 본다.

【直 譯】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辛味는 氣로 들어가는데 많이 섭취하면 洞心證을 유발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小俞가 대답하였다. “辛味가 胃로 들어가면 그 氣는 위로 上焦로 走行하는데 上焦는 氣를 받아 모든 陽을 運轉하는 것이니, 生薑이나 부추같은 기운을 쏘이면 營衛의 氣가 不時에 받아 오랫동안 心下에 머물게 되므로 洞心證을 유발합니다. 辛味는 氣와 더불어 함께 運轉하므로 辛味를 섭취하면 땀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意思라

第四節. 苦味の 作用

【原 文】

黃帝曰 苦走骨하니 多食之에 令人變嘔¹⁾는 何也오 少俞曰 苦入於胃²⁾하면 五穀之氣皆不能勝苦³⁾하고 苦入下脘⁴⁾⁽¹⁾하면 三焦之道⁵⁾皆閉而不通⁶⁾하니 故로 變嘔⁷⁾라 齒者는 骨之所終也 故로 苦入而⁸⁾走骨이라 故로 入而復出⁹⁾하니 知其走骨也¹⁰⁾⁽¹⁾니이다

【校 勘】

- 1) 變嘔: 語譯에서 “孫鼎宜는 ‘變’字는 아마도 衍文인 것 같다. 嘔자는 其變爲嘔로 보기도 하지만 上下 문맥을 보더라도 맞지 않다. 苦味는 氣寒하니 寒氣는 胃를 傷하므로 胃가 傷하면 嘔한다.”라고 하였다.”
- 2) 苦入於胃: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苦入於胃 其氣燥而涌泄’로 되어 있다.
- 3) 不能勝苦: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不勝苦’로 되어 있다.
- 4) 苦入下脘: 《甲乙》卷六 第九에는 ‘苦入下脘下脘者’로 되어 있고,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苦入下管 下管者’로 되어 있다.
- 5) 三焦之道: 《甲乙》卷六 第九에는 ‘三焦之路’로 되어 있다.
- 6) 閉而不通: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閉則不通’으로 되어 있다.
- 7) 故變嘔: 《甲乙》卷六 第九와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모두 ‘故氣變嘔’로 되어 있다.
- 8) 故苦入而: 《甲乙》卷六 第九와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모두 ‘故苦入胃而’로 되어 있다.
- 9) 復出: 《甲乙》卷六 第九에는 ‘復出必驚

疏'로 되어 있고,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復出齒必齟'로 되어 있다.

- 10) 知其走骨也: 《甲乙》卷六 第九에는 '是知其走骨也'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下脘: 胃의 下口인 幽門 부위

【較註】

苦入於胃 五穀之氣 皆不能勝苦 苦入下脘 三焦之道 皆閉而不通 故變嘔 齒者 骨之所終也 故苦入而走骨 故入而復出 知其走骨也 楊·景岳은 “苦味는 性이 단단하고 내려가므로 骨에 들어간다. 苦味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胃中의 陽氣가 運化하는 것을 방해하니 故로 五穀之氣가 能히 이기지 못하며 三焦가 막혀 통하지 않아 들어가더라도 다시 나오게 되니 變하여 嘔病이 된다. 또한 齒와 같은 것들은 骨의 끝이므로 苦味가 骨에 통하지만 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氣가 다시 口齒를 따라 나오는 것은 바로 苦味가 走骨하기 때문이다. 또한 宣明五氣篇에 ‘苦味는 骨에 흘러들어가니 骨病에는 苦味를 과다하게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다.”¹⁸⁾라고 하였고,

- 18) 楊: 苦는 火味니 計其走血하여 以取資骨令堅 故로 苦走骨也라 苦味堅強하여 五穀之氣가 不能勝之 故로 入三焦면 則營衛不通하고 下焦復約하여 所以食之還出하니 名曰變嘔也라 齒爲骨餘니 以楊枝苦物資齒면 則齒鮮好 故로 知苦走骨이라 人食苦物에 入咽還出 故로 知走骨而出嘔也라 ●景岳: 苦味는 性堅而沈 故로 走骨이라 味過於苦면 則抑遏胃中陽氣하여 不能運化 故로 五穀之氣不能勝之하며 三焦之道閉而不通하여 所以入而復出하니 其變爲嘔라 又如齒는 爲骨之所終이니 苦通於骨이나 內不能受하여 其氣復從口齒而出은 正因其走骨也라 又宣明五氣篇에 曰苦走骨하니 骨病엔 無多食苦라하니라

馬·張·黃은 “苦味가 胃로 들어가면 五穀之氣가 모두 이기지 못하여 바로 下脘으로 들어간다. 三焦가 이 苦味를 받으면 모두 닫혀 통하지 아니하고 下泄할 수 없어서 거꾸로 上湧하게 되니 故로 嘔吐하게 된다. 齒는 上部에 있으나 骨의 끝이니 氣가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데 齒牙를 거치는 것으로 苦味가 走骨하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라고 하였고,

章은 “三焦之道가 막히면 氣가 能히 輸布되지 못하여 壅塞하게 되며 中脘의 氣가 輸布되지 못하여 津液이 不化하므로 素問에 ‘苦味를 과다 복용하면 脾氣가 濡潤하지 못하고 胃氣가 막히게 된다.’하였으니 津液이 不化하여 脾가 濡潤하지 못하며 氣가 中脘에 막혀 胃氣가 厚하게 되는 것은 厚濁한 氣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므로 變嘔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骨은 몸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으니 苦味는 氣를 막는 까닭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 19) 馬: 此는 言多食苦者 令人嘔也라 蓋苦入於胃면 而胃中五穀之氣가 皆不能勝其苦味 故로 苦入下脘하면 則上中下焦之氣가 皆閉而不通하니 所以變而爲嘔也라 況齒者는 乃骨之所終 故로 苦入則走骨하고 走骨則走齒하니 今入而復出者는 卽從齒出也니 此可以知苦之必走骨矣라 ○張: 炎上作苦하니 君主之味也 故로 五穀之氣가 皆不能勝之라 苦性下泄 故로 入於下脘 三焦者는 少陽相火也요 苦性寒 故로 三焦之道開閉不通하니 三焦不通하면 則入胃之水穀이 不得通調布散 故로 變而爲嘔也라 夫腎主骨하니 腎爲寒水之臟이며 苦는 性寒하니 故로 走骨은 同氣相感也나 然이나 苦乃火味 故로 入於下而復出於上은 以其性下泄而上湧也라 ●黃: 苦入於胃면 五穀之氣가 皆不能勝之하여 直入下脘이라 三焦之道得此苦味면 皆閉而不通하고 不得下泄하여 則逆而上湧 故로 變嘔吐라 齒居上部나 骨之所終也니 入而復出에 經歷齒牙로 知其走骨이니 故로 苦入而走骨矣라

骨로 들어가게 하니 이미 깊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나올 곳이 없으면 도리어 胃로 나오니 다시 嘔出하게 된다.²⁰⁾”라고 하였고,

丹波는 “變嘔는 바로 變化된 것을 嘔吐하는 것이니 佛典의 變吐라는 文章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景岳의 그 變이 嘔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入而復出의 뜻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甲乙에 의거하면 아마도 苦味の 氣가 들어갔다 다시 나와 치아가 검고 성글게 된다는 뜻인 것 같다.²¹⁾”라고 하였다.

【考 察】

[校勘에 對한 考察]

‘苦入於胃’에 대해 《千金》에는 ‘苦入於胃 其氣燥而涌泄’로 되어 있는데, ‘酸入於胃 其氣澀以收’ ‘鹹入於胃 其氣上走中焦’ ‘辛入於胃 其氣走於上焦’ ‘甘入於胃 其氣弱小’ 등의 문장과 비교하여 볼 때 《千金》에 의거 보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苦入下脘’에 대해 《甲乙》에는 ‘苦入下脘 下脘者’로 되어 있고, 《千金》에는 ‘苦入下管 下管者’로 되어 있는데, ‘下管’은 ‘下脘’의 誤植인 것 같다.

‘故變嘔’에 대해 《甲乙》과 《千金》에는 모

두 ‘故氣變嘔’로 되어 있는데, 涌吐之劑인 瓜蒂²²⁾나 藜蘆²³⁾는 맛이 쓰고, 秦芫가 들어간 處方의 복용방법에 ‘복용후에는 입에 맞는 飮食으로 吐하려고 하는 것을 누른다.²⁴⁾’한 것을 볼 때 苦味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氣를 변화시켜 涌吐하는 작용이 나타나니 ‘故氣變嘔’로 하는 것이 문맥의 뜻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므로 옳다고 본다.

‘復出’에 대해 《甲乙》에는 ‘復出必驚疏’로 되어 있고, 《千金》에는 ‘復出齒必驚疏’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 苦味와 骨과의 관계를 논하고 있고, 齒는 骨之餘이며, 文章에서 復出에 대한 명확한 지적이 없고, 또한 다른 節의 文脈을 살펴보더라도 《甲乙》《千金》에 의거 ‘復出齒必驚疏’로 보충하여야 한다.

[較註에 對한 考察]

‘苦走骨’에 대하여 楊·景岳은 ‘苦味の 性이 堅而沈하는 것이 骨과 같으므로 走骨한다.’로 보았으며, 張은 ‘腎主骨하니 腎은 寒水之臟이며 苦味는 性이 寒하므로 同氣相感하므로 走骨한다.’로 보았으니 큰 의미에 내용은 비슷하다.

‘變嘔’에 대하여 楊·黃·丹波는 變化된 飮食物을 嘔吐하는 것으로 보았고, 馬·張·景岳·章은 氣가 變化되어 嘔吐하는

20) 章: 三焦之道閉면 則氣不能輸布而壅塞하여 脘中氣不輸하여 則津液不化 故로 素問에 云 味過於苦면 脾氣不濡하고 胃氣乃厚라하니 津液不化 故로 脾不濡潤하며 氣壅脘中 故로 胃氣厚는 謂厚濁之氣不下行 故로 變嘔也라 骨者는 軀體至深之處니 因苦味閉氣하여 不能外走而深入於骨하니 既到深處하여 無可復走면 則反走於胃而復嘔出也라

21) 丹波: 變嘔는 卽嘔變이니 佛典에 有變吐之文으로 可以證焉이라 張註의 其變爲嘔는 非也라 入而復出은 未詳이나 據甲乙하면 乃似 苦味之氣入而復出하여 爲黎黑疏豁之義라

22) 鄒澍, 《本經疏證》, 旋風出版社, 臺北, 1982. p.124

(瓜蒂具微下炎上之用 乃蒂味苦… 誠涌洩之宣劑通劑也.)

23) 上揭書, p.271 (藜蘆味辛苦寒…性主涌吐)

24) 黃度淵, 《方藥合編》, 麗江出版社, 서울, 1988, pp.164~165

秦芫蒼朮湯 … 三味再煎 空心熱服 以美膳壓之

것으로 보았는데, 苦味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氣를 下泄하여 胃中の 陽氣가 損傷되므로 陽氣의 손상으로 인하여 陰寒之氣가 上逆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章의 주장이 가장 옳다고 본다.

‘入而復出’에 대하여 楊은 苦味를 먹고 吐하는 것으로 보았고, 張·章은 苦味の 성질이 下泄하기도 하며 上涌하기도 하므로 骨로 들어가기도 하고 다시 胃로 나오기도 한다고 보았으며, 馬·景岳·黃·丹波는 入을 骨로 들어가는 것으로 出을 齒牙를 따라 나오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문장에서 ‘齒者 骨之所終也’의 의미와 이에 대한 校勘의 내용을 참조하여 볼 때 馬·景岳·黃의 주장이 가장 옳다고 본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苦味는 骨로 들어가는데 많이 섭취하면 기를 변화시켜 구토를 일으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小俞가 대답하였다. “苦味가 胃로 들어가면 五穀의 氣는 모두 苦味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苦味가 下脘으로 들어가면 三焦의 통로가 모두 막혀 통하지 않는 까닭에 기를 변화시켜 嘔吐를 일으킵니다. 치아는 骨이 끝마치는 곳이므로 苦味를 먹으면 骨로 走行하며, 들어갔다 다시 치아로 나오게 되므로 苦味가 骨로 走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第五節. 甘味の 作用

【原文】

黃帝曰 甘走肉하니 多食之에 令人 悅心¹⁾은 何也오 少俞曰 甘入於胃²⁾하면 其氣 弱小³⁾하여 不能上至於上焦⁴⁾하여 而與穀留

於胃中者⁵⁾하여 令人 柔潤⁶⁾者也니 胃柔則緩⁶⁾하고 緩則蟲動하고 蟲動⁷⁾則令人 悅心이라 其氣外通於肉⁸⁾ 故로 甘走肉⁹⁾하니이다

【校勘】

- 1) 悅心: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惡心’로 되어 있다.
- 2) 甘入於胃: 《甲乙》卷六 第九에는 ‘甘入於脾’로 되어 있다. 《靈樞·九鍼論》과 《素問·宣明五氣篇》 모두 ‘甘入脾’로 되어 있다.
- 3) 弱小: 《太素》卷二 調食과 《甲乙》卷六 第九에는 ‘弱少’로 되어 있고,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弱劣’로 되어 있다.
- 4) 不能上至於上焦: 《太素》卷二 調食에는 ‘不能上於上焦’로 되어 있고, 《甲乙》卷六 第九에는 ‘不能上至上焦’로 되어 있으며,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不能上進於上焦’로 되어 있다.
- 5) 而與穀留於胃中者: 《太素》卷二 調食과 『甲乙』卷六 第九에는 ‘而與穀俱留於胃中 甘者’으로 되어 있다.
- 6) 令人柔潤者也 胃柔則緩: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甘入則令人柔緩’으로 되어 있다.
- 7) 緩則蟲動蟲動: 《周本》《合本》에는 ‘緩則蟲動蟲動’으로 되어 있고,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柔緩則虺動虺動’으로 되어 있다.
- 8) 其氣外通於肉: 《甲乙》卷六 第九에는 ‘其氣通於皮’로 되어 있다.
- 9) 故甘走肉: 《太素》卷二 調食에는 ‘故曰甘入走肉矣’로 되어 있고, 《甲乙》卷六 第九에는 ‘故甘走皮’로 되어 있으며, 《千金》卷二十六 序論一에는 ‘故甘走肉則肉多粟起而胝’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悅心: 心悶, 가슴이 답답한 모양
(2) 柔潤: 약하고 부드러우며 축축한 모양

【較註】

甘入於胃 其氣弱小 不能上至於上焦 而與穀留於胃中者 令人柔潤者也 胃柔則緩 緩則蟲動 蟲動則令人悅心 其氣外通於肉 故甘走肉

楊·馬·景岳·黃·章은 “甘味の 性は 柔緩한 까닭에 그 氣가 弱少하여 能히 上焦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甘味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穀氣와 더불어 胃中에 머물러서 사람으로 하여금 柔潤하고 緩하게하는데, 이것이 오래되어 甘味가 濕化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생충이 발생하여 胃에서 움직일 것이니 甘味가 中部를 이완시키면 가슴이 답답하게 된다. 甘味는 脾로 들어가고 脾는 主肉하므로 甘味는 肉으로 들어간다. 宣明五氣篇에 ‘甘味는 肉으로 走行하므로 肉病에는 甘味를 많이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다.²⁵⁾”라고 하였고,

25) 楊: 甘味는 氣弱하여 不能上於上焦하고 又令柔潤하니 胃氣緩而蟲動이라 蟲動者는 穀蟲動也니 穀蟲動而撓心 故로 令心悅이라 悅은 音悶이라 脾以主肉하고 甘通於肉 故로 甘走肉也라 ○馬: 此는 言多食甘者令人悅心也라 蓋甘入於胃면 則甘本屬土하고 其性主柔 故로 甘味之氣最弱而小하여 不能上至於上焦하고 而與五穀留於中脘하니 所以胃氣亦柔潤也라 胃柔則氣緩하고 氣緩則蟲因味甘而動하고 蟲動則心自悶耳라 且所謂甘走肉者는 甘既屬土하고 土主於肉하며 肉在於外하니 甘味之氣가 必走而聚之也라 內與外不相通이면 其心安得而不悶乎아 ●景岳: 甘性柔緩 故로 其氣弱少하여 不能至於上焦라 味過於甘이면 則與穀氣留於胃中하여 令人柔潤而緩하며 久則甘從濕化하여 致生諸蟲하여 蟲動於胃하니 甘緩於中

張은 “稼穡이 甘味를 생성하니 坤土의 味이다. 坤德은 柔順한 까닭에 그 氣가 弱小하며 太陰濕土는 主氣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柔潤하게 한다. 柔는 土의 性품이요 潤은 濕의 기운이며 무릇 蟲은 陰類이니 胃가 陽明燥熱의 氣運에 傷하거나 胃가 柔緩해지면 기생충이 動하여 胃로 올라가 飲食을 흡수하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이 답답하게 만든다. 土氣는 밖으로 肌肉을 主하므로 甘味는 肉으로 들어간다.²⁶⁾”라고 하였다.

【考察】

[校勘에 對한 考察]

‘而與穀留於胃中者’에 대해 《太素》와 《甲乙》에는 ‘而與穀俱留於胃中 甘者’으로 되어

이면 心當悅矣라 悅은 悶也라 甘入脾하고 脾主肉 故로 甘走肉이라 宣明五氣篇에 曰甘走肉하니 肉病엔 無多食甘이라하니라 ○黃: 甘入於胃면 其氣弱小하여 以得土氣之沖和하니 其性不烈也라 弱小故로 不能上至於上焦하여 而與穀氣留於胃中하여 氣滯津凝하니 令人柔潤하며 胃柔則緩하고 緩則蟲動하고 蟲動氣阻 故로 令人悅心이라 其氣外通於肉 故로 甘走肉也라 ○章: 經에 曰五味入胃에 各歸所喜攻하니 酸先入肝하고 苦先入心하고 甘先入脾하고 辛先入肺하고 鹹先入腎者는 是隨金木水火土之性하여 而先入以助之也라 此言走者는 是入後而走之地니 其先合五行之性而入하고 其後隨身中氣化而走니 則五走有不同이라 如肝主筋而酸走筋하며 肺主氣而辛走氣하며 脾主肉而甘走肉은 是隨先入之臟氣而走也요 血脈心所主나 鹹先入腎而走血하며 骨者腎所主나 苦先入心而反走骨은 是皆隨身中氣化而走也니 明乎此라야 則其補瀉宜忌之道를 可不失矣라

26) 張: 稼穡作甘하니 坤土之味也라 坤德柔順 故로 其氣弱小하며 太陰濕土는 主氣 故로 令人柔潤하니 柔者는 土之性이요 潤은 乃濕之氣也라 夫蟲은 乃陰類니 胃秉陽明燥熱之氣거나 若胃柔而緩이면 則蟲動而上入於胃矣하여 蟲上食 故로 令人悅心이라 土氣는 外主於肌肉 故로 甘走肉이라

있는데, 이는 下句인 ‘令人柔潤者也’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 하므로 ‘甘’字를 보충하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緩則蟲動蟲動’에 대해 《周本》 《馬注本》 《張注本》에는 ‘緩則蟲動蟲動’으로 되어 있고, 『千金』에는 ‘柔緩則虵動虵動’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蟲病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원문의 것이 옳다고 본다.

‘故甘走肉’에 대해 《甲乙》에는 ‘故甘走皮’로 되어 있고, 《千金》에는 ‘故甘走肉則肉多粟起而胝’로 되어 있는데, 醫學理論上 甘味와 皮는 별로 관계가 없으므로 《甲乙》의 ‘甘走皮’는 옳지 못하며, 또한 다른 節의 ‘故酸入而走筋矣’ ‘故鹹入而走血矣’ ‘辛入而與汗俱出’ ‘故苦入而走骨’에도 五味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病證을 제시한 곳이

아무데도 없으므로 《千金》의 내용은 옳지 못하다.

[較註에 對한 考察]

‘蟲動’의 原因에 대하여 楊 · 馬 · 景岳 · 黃 · 章은 甘味를 과다하게 복용하여 胃의 기운이 柔緩해지므로 발생한다고 보았고, 張은 이러한 原因외에 胃가 陽明燥金의 氣運에 의해 傷하여도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전반적인 蟲動의 原因에서 보면 張의 胃가 陽明燥金의 氣運에 의해 傷하여 발생한다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이 문장 전체의 내용이 氣가 弱小하여 蟲動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원문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

黃帝內經 全篇에 五味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篇 味	五臟生成篇	藏 氣 法 時 論							
	五味所傷	五 臟 苦 欲 補 瀉			穀	果	畜	菜	用
酸	肉胝皴而脣揭	心苦緩 急食酸以收之	肺欲收 急食酸以收之 用酸補之 辛瀉之	小豆	李	犬	韭	收	
苦	皮槁而毛拔	脾苦濕 急食苦以燥之 肺苦氣上逆 急食苦以泄之	腎欲堅 急食苦以堅之 用苦補之 鹹瀉之	麥	杏	羊	薤	堅	
甘	骨痛而髮落	肝苦急 急食甘以緩之	脾欲緩 急食甘以緩之 用苦瀉之 甘補之	粳米	棗	牛	葵	緩	
辛	筋急而爪枯	腎苦燥 急食辛以潤之	肝欲散 急食辛以散之 用辛補之 酸瀉之	黃黍	桃	鷄	蔥	散	
鹹	脈凝泣而變色		心欲栗 急食鹹而栗之 用鹹補之 甘瀉之	大豆	栗	猪	藿	軟	

篇 味	陰陽應象大論 五運行大論				宣明五 氣篇	至真要大論		九鍼 論	五味 五音五味					五味論			
	生	所 生	傷	勝	五禁	作 用		所 入	所入	穀	果	畜	菜	色	五禁	所走	所病
酸	肝	木	筋	甘	筋病	涌泄	收	肝	肝	麻	李	犬	韭	青	脾病	筋	癰
苦	心	火	氣	辛	骨病		堅,急	心	心	麥	杏	羊	薤	赤	肺病	骨	變嘔
甘	脾	土	肉	鹹	肉病	發散	緩,燥	脾	脾	粳米	棗	牛	葵	黃	腎病	肉	悵心
辛	肺	金	皮毛	酸	氣病		散,潤	肺	肺	黃黍	桃	鷄	蔥	白	肝病	氣	洞心
鹹	腎	水	血	苦	血病	涌泄	軟	腎	腎	大豆	栗	猪	藿	黑	心病	血	渴
淡						滲泄			胃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甘味는 肉으로 들어가는데 많이 섭취하면 悵心證이 발생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小俞가 대답하였다. “甘味が 胃로 들어가면 그 氣는 弱하고 적어서 능히 上焦로 올라가지 못하고 水穀과 더불어 胃中에 머물러 人體의 胃를 柔弱하고 축축하게 만드니, 胃가 柔弱해지면 늘어지고, 늘어지면 기생충이 蠕動하고, 기생충이 蠕動하면 인체에 悵心證을 유발합니다. 그 氣는 밖으로 肌肉과 통하므로 甘味는 肉으로 走行합니다.”

IV. 意 譯

黃帝께서 小俞에게 물어 말씀하셨다. “五味가 입에 들어가면 각각 歸屬되는 바가 있고, 이들五味가 일으키는 病變이 있습니다. 신맛(酸味)은 筋으로 走行하는데 신맛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변이 통하지 않고, 짠맛(鹹味)은 血分으로 走行하는데 짠맛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갈증이 나며, 매운맛(辛味)은 氣分으로 走行하는데 매운맛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心中이 공허해지고, 쓴맛(苦味)은 骨로 走行하는데 쓴맛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氣가 逆上하여 嘔吐가 나며, 단맛(甘味)은 肌肉으로 走行하는데 단맛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나는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원하건대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십시오.”

小俞가 대답하였다. “신맛이 위로 들어가면 性味가 澀하여 收斂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上焦와 中焦로만 들어가며, 氣를 따라 출입하지 못합니다. 氣를 따라 출입하지 못하면 胃에 머무는데 胃中이 따뜻하고 조화

로우면 膀胱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膀胱은 皮質이 얇고 연하므로 신맛이 들어가면 수축되고, 이로 인해 膀胱의 출구가 約束되어 막히고 수액의 운행에 영향을 미쳐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前陰은 모든 筋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이며, 肝은 筋을 주관하고 그 맛은 신맛에 속하므로 신맛을 섭취하면 筋으로 들어갑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짠맛은 血分으로 走行하는데 과다하게 섭취하면 갈증을 일으키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小俞가 대답하였다. “짠맛이 胃로 들어가면 짠맛에서 化生한 氣는 中焦로 간 다음 脈으로 들어가는데, 脈은 血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血과 염분이 섞이면 血이 凝滯되는데, 血이 凝滯되면 津液을 필요로 하므로 胃의 津液이 血脈으로 흘러들고, 胃의 津液이 血脈으로 흘러들면 胃의 津液이 마르며, 胃의 津液이 마르면 咽部의 津液이 마르므로 舌本이 건조해져 갈증이 자주 납니다. 血脈은 中焦의 통로를 따라 운행되므로 짠맛이 胃에 들어가면 血分으로 走行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매운맛은 氣分으로 走行하는데, 매운맛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心中이 공허해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小俞가 대답하였다. “매운맛이 胃에 들어가면 매운맛에서 化生한 氣는 上焦로 갑니다. 上焦는 中焦의 氣를 받아들여 전신의 陽氣를 영양합니다. 만약 생강이나 부추 등의 매운맛이 上焦를 薰蒸하면 營氣와 衛氣가 불시에 매운맛의 자극을 받아, 오랫동안 心下(胃中)에 머물므로 心中이 공허해집니다. 매운맛은 衛氣와 함께 운행되므로 胃에 들어간 후 땀과 함께 나옵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쓴맛은 骨로 走行하는데, 쓴맛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氣가 逆上하

여 嘔吐를 일으키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小俞가 대답하였다. “쓴맛이 胃에 들어가면 五穀의 氣는 모두 쓴맛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쓴맛이 下脘으로 들어가면 三焦의 통로가 모두 막혀 氣機가 통하지 않으므로 胃의 下降기능이 실조되고 胃氣가 上逆하여 嘔吐가 납니다. 치아는 骨氣의 餘分이 나타나는 곳이므로 쓴맛이 인체에 들어가면 먼저 骨로 들어가며, 쓴맛이 骨로 들어가면 치아가 검어지거나 성글게 되어 그 徵候가 치아에 다시 나타나므로 쓴맛이 骨로 走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셨다. “단맛은 肌肉으로 走行하는데, 단맛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小俞가 대답하였다. “단맛이 胃로 들어가면 단맛에서 化生한 氣가 약하고 적으므로 上焦로 올라가지 못하고 음식물과 같이 胃中에 머물러 인체의 胃氣를 연약하게 합니다. 胃氣가 연약해지면 胃氣가 완만해지고, 胃氣가 완만해지면 기생충이 蠕動하고, 기생충이 蠕動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단맛에서 化生한 氣는 외부의 肌肉과 통하므로 단맛은 肌肉으로 들어갑니다.”

V. 結 論

이상과 같이 『靈樞 · 五味論』篇에 대한 관련 文獻을 校勘하고 各家의 註釋을 比較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章에서

‘洞心’에 대해 營衛之氣가 흩어져서 나타나는 病證으로 보아야 하니 ‘慍心’으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惋心’에 대해 ‘惋’과 ‘悶’은 서로 통하며,

‘惡心’의 뜻도 이와 비슷하므로 원문에 있는 ‘惋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章 1節에서

‘留於胃中’에 대해 원문장에 ‘上之兩焦’라고 한 것을 볼 때 ‘流於胃中’은 다시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留於胃中’이 옳다고 본다.

‘膀胱之胞薄以濡’에 대해 ‘膀胱走胞胞薄以濡’로 보아 ‘膀胱’과 ‘胞’을 별개의 것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膀胱之胞薄以濡’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留於胃中 胃中和溫 則下注膀胱 …約而不通水道不行 故癰’에 대해 ‘酸味는 밖에서 안으로 氣를 收斂시키지 아니하고 바로 아래로 膀胱으로 들어가 三焦의 氣化를 얻지 못하게 하여 小便이 不通하게 되므로 癰病이 된다.’고 보는 의견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2節에서

‘則血氣走之’에 대해 ‘脈者 血之所走也’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본다.

‘胃中汁注之 注之則胃中竭’에 대해 ‘胃中汁注之 注之則’는 설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胃中竭’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鹹走血’의 의미에 대하여 ‘鹹味는 水에 속하고 인체의 血은 물에 해당하므로 鹹味가 血로 들어간다’고 보는 것과, ‘鹹味의 上涌하는 작용에 따라 脈으로 흘러들어가니 脈이 行하는대로 血氣가 따라 흘러간다’고 보는 것과 ‘鹹이 水에 속하므로 鹹味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水가 火를 剋하여 所勝하는 血로 들어간다.’로 보는 것이 모두 一理는 있다고 본다.

3節에서

‘久留心下故洞心’에 대해 ‘却留於心下故慍慍痛也’로 되어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4節에서

‘苦入於胃’에 대해 ‘酸入於胃 其氣澀以收’ ‘鹹入於胃 其氣上走中焦’ ‘辛入於胃 其氣走於上焦’ ‘甘入於胃 其氣弱小’ 등의 문장과 비교하여 볼 때 《千金》에 의거 ‘苦入於胃 其氣燥而涌泄’로 보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苦入下脘’에 대해 《千金》에는 ‘苦入下管 下管者’로 되어 있는데, ‘下管’은 ‘下脘’의誤植으로 보여 진다.

‘復出’에 대해 다른 節의 文脈을 살펴볼 때 《甲乙》 《千金》에 의거 ‘復出齒必齟’로 보충하여야 한다.

‘苦走骨’에 대하여 ‘苦味の 性이 堅而沈하는 것이 骨과 같으므로 走骨한다.’는 것과 ‘腎主骨하니 腎은 寒水之臟이며 苦味는 性이 寒하므로 同氣相感하므로 走骨한다.’는 것은 큰 의미에서 내용이 비슷하다.

5節에서

‘變嘔’에 대하여 變化된 飲食物을 嘔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苦味를 과다하게 복용하면 氣를 下泄하여 胃中の 陽氣가 損傷되므로 陽氣의 손상으로 인하여 陰寒之氣가 上逆하므로 氣가 變化되어 嘔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入而復出’에 대하여 ‘入을 骨로 들어가는 것으로 出을 齒아를 따라 나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而與穀留於胃中者’에 대해 ‘而與穀俱留於胃中 甘者’로 하는 것이 下句인 ‘令人柔潤者也’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 하므로 옳다.

‘蟲動’의 原因에 대하여 甘味를 과다하게 복용하여 胃의 기운이 柔緩해지므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參 考 文 獻

1. 廓靄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一中社, 서울, 1992
2. 羅天益, 《衛生寶鑑》,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3. 丹波元簡, 《靈樞識》,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4. 樓英, 《醫學綱目》,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7
5. 馬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4
6. 馬蒔·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81
7. 裴秉哲, 《今釋黃帝內經靈樞》, 成輔社, 서울, 1995
8. 巢元方, 《諸病源候論》,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9. 孫思邈, 《千金要方》, 杏林出版社, 서울, 1974
10.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76
11. 王燾, 《外臺秘要》, 成輔社, 서울, 1975
12.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大星文化社, 서울, 1994
13. 王永撰, 《靈樞經》, 臺灣中華書局, 臺北, 1972
14. 王叔和, 《脈經》, 大孚書局, 臺南, 1985
15. 王懷隱等編, 《太平聖惠方》, 平常心出版社, 北京, 1988
16.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17. 楊上善 著·簫延平 按, 《黃帝內經太素》, 出版社·年度未詳
18.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大一書局, 臺北, 1979
19.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논장, 서울,

- 1990
20. 劉完素,《中國醫學大系中素問病機宜保命集》
 21. 李今庸,《新編黃帝內經綱目》,上海科學技術出版社,上海,1988
 22. 李南九 懸吐·註釋,《張氏類經上》,法仁文化社,서울,1998
 23. 李中梓,《內經知要》,新文豐出版社,台北,1977
 24. 任應秋,《黃帝內經章句索引》,人民衛生出版社,北京,1986
 25. 張介賓,《類經簡字本》,成輔出版社,서울,1982
 26. 張介賓,《類經正字本》,大星文化社,서울,1982
 27. 章楠,《靈素節注類編》,浙江科學技術出版社,中國,1986
 28. 張仲景,《仲景全書》,大星文化社,서울,1984
 29. 周定王樞,《中國醫學大系中普濟方》
 30. 程士德外,《內經》,人民衛生出版社,北京,1985
 31. 陣夢雷等編,《醫部全錄 醫經註釋下》,人民衛生出版社,北京,1988
 32. 陳璧琥·鄭卓人,《靈樞經白話解》,人民衛生出版社,北京,1963
 33. 河北醫學院,《靈樞經校釋》,人民衛生出版社,北京,1982
 34. 皇甫謐,《黃帝鍼灸甲乙經》,宏業書局有限公司,臺北,1976
 35. 皇甫謐著·山東中醫學院校釋,《鍼灸甲乙經校釋》,人民衛生出版社,北京,1979
 36. 黃元御,《靈樞懸解》,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0
 37. 洪元植,《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傳統文化研究會,서울,1994
 38. 洪元植,《精校黃帝內經靈樞》,東洋醫學

研究院,서울,1985

39. 洪元植,《黃帝內經靈樞解釋》,高文社,서울,1994

參 考 辭 典

1. 姜寔鎭,《進明中韓大辭典》,進明出版社,서울,1993
2. 高大民族文化研究所編,《中韓辭典》,高大民族文化研究所,서울,1989
3. 廓靄春,《黃帝內經詞典》,天津科學技術出版社,天津,1991
4. 金壽山,《漢醫籍字典》,醫聖堂,서울 1991
5. 金元中,《虛辭辭典》,玄岩社,서울,1994
6. 謝觀,《東洋醫學大辭典》,高文社,서울,1987
7. 商務印書館,《辭源》,商務印書館香港分館,香港,1987
8. 李相殷,《漢韓大字典》,民衆書林,서울,1994
9. 李熙昇,《國語大辭典》,民衆書林,서울,1990
10. 張登本·武長春,《內經辭典》,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0
11. 鄭鳳欽,《漢英英漢中醫大辭典》,天津大學出版社,天津,1994
12.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中文大辭典》,中文大辭典出版部,臺北,1986
13. 車柱環 外,《明文漢韓大字典》,明文堂,서울,1984
14. 漢英醫學大詞典編纂委員會,《漢英醫藥大詞典》,商務印書館,香港,1988
15. 許慎,《說文解字注》,大星文化社,서울,1990
16. 洪元植 外,《漢醫學大辭典》,東洋醫學研究院,서울,1989